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비상!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어. 우리나라에도 감염자가 늘자 일부 학교들은 개학을 미루기도 한다는데... 사태가 얼마나 심각하기에 학교도 문을 닫는 걸까?

코로나19, 전 세계를 흔든다!

지난해 12월 31일, 중국 우한 위생건강위원회가 원인을 모르는 폐렴 환자 27명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어요. 이어 1월 11일, 병원체는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로 드러났지요. 세계보건기구는 신종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라 부르기로 했고, 우리나라는 준말을 ‘코로나19’로 정했어요.

코로나19는 전 세계로 번져 확진자는 7만 5000여 명 발생했고, 사망자는 2000여 명, 완치자는 1만 6000여 명이예요.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82명까지 늘었어요. 이중 16명은 완치됐지만, 29번과 31번 확진자는 해외여행도 다녀오지 않았고 이전에 확인된 확진자와 접촉했는지도 밝혀지지 않아 감염 경로가 모호해요. 특히 31번

동아일보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일부 학교는 개학을 연기하거나 휴업을 결정했다.

환자가 발생한 18일 이후 대구·경북 지역에서 4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일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한 단계로 판단한다"고 밝혔어요. 해외 유입을 막던 방역 대책을 국내로도 강화하겠다는 의미지요.(2월 20일 2시 기준)

과학자들은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질병확산모형’이라는 수학 모형으로 계산하고 있지만,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 교수는 “확진되지 않은 감염자가 있을 수 있는 등 정보가 불안정하고, 나라마다 방역 정책 등이 다르므로 예측을 성급하게 믿어서 안 된다”고 말했어요. 한편, 경희대학교 생물학과 정용석 교수는 “확진자 수 증가 속도가 줄어도 감염자를 모두 찾기는 어려워 코로나19가 독감, 메르스 같은 계절성 전염병이나 풍토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답니다.

2월 7일, 중국 우한대학교 연구팀은 코로나19 환자의 대변에서 바이러스를 발견했다. 코로나19와 비슷한 다른 코로나바이러스 중도 적은 비율이 소화에 감염되므로, 대변을 통해 전파될 가능성이 작지만 있다. 이를 피하려면 변기물을 내릴 땐 뚜껑을 닫아 바이러스가 튀는 걸 막고, 화장실을 쓴 후엔 손을 씻어야 한다.



코로나19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내뿜는 침이나 콧물 등 비말로 주로 전파된다. 비말은 공기 중에 떠돌지 않고 떨어져 바닥과 손잡이 등에 붙는다. 2016년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 물리학과 리디아 부루이바 교수가 초고속 카메라로 분석한 결과, 기침은 최대 6m, 재채기는 최대 8m까지 침이 날아가 떨어졌다.

James Gathany(W)



중국 우한시는 환자를 치료할 병상이 부족해 임시 병동을 만들었다.

궁금할까 봐 알려줌! Q&A

자료: 질병관리본부, 대한의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바이러스학회

Q 마스크는 어떤 걸 써야 하나요?

코로나19는 주로 비말로 감염되므로, 침방울이 나가거나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쓰면 된다. 나도 모르게 질병에 감염됐을 경우에 대비해 기침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는 꼭 마스크를 써야한다. 또, 다른 사람이 기침을 했을 때 침이 나에게 닿을 정도로 혼잡한 공간에서도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다. 반대로 혼잡하지 않은 야외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괜찮다.

Q 확진자가 다녀간 뒤, 바이러스는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남나요?

코로나19바이러스는 신종이라 숙주 밖에서 얼마 동안 생존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코로나19바이러스와 비슷한 다른 코로나바이러스 종의 생존력을 참고할 수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1월 27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종은 보통 표면에 묻어 몇 시간밖에 생존하지 못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2월 6일, 독일 그라이프스발트대학병원의 귄터 캄프 교수팀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외에 다른 코로나바이러스 종이 표면에서 얼마나 생존하는지에 대한 모든 영문 논문 22편을 살펴본 결과, 평균 4~5일이었다고 발표했다. 이 바이러스들은 온도가 약 30℃로 높거나 습도가 낮을수록 생존력이 떨어졌다.

Q 확진자가 다녀간 곳에 다시 가도 되나요?

질병관리본부는 확진자가 다녀간 곳을 소독하고 다음날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코로나19바이러스는 소독제에 금세 파괴되기 때문에, 소독이 끝난 장소는 감염자가 이전에 다녀갔더라도 안전하다.

Q 확진자가 증상이 없었을 때도 질병이 전파될 수 있나요?

증상이 없을 때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주된 감염 경로는 아니라는 게 대한바이러스학회의 입장이다.(2월 6일 발표) 다만 코로나19는 독감과 달리 증상이 천천히 발현돼, 환자가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증상이 약한 경우가 보고됐다.

감염을 피하려면 마스크보다 중요한 것은 손씻기다. 비말 감염 질환은 손에 바이러스가 묻은 채 눈, 코, 입을 만져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막는 30초 손씻기

- 1 비누칠을 하고 손바닥을 비빈다.
- 2 깍지끼듯 손가락 사이사이를 닦는다.
- 3 엄지손가락도 닦는다.
- 4 손바닥에 손끝을 문지르듯 닦는다.
- 5 반대편 손등도 깨끗이 씻는다.
- 6 양손을 마주 잡고 손가락 끝을 닦는다.

